

永嘉君, 僖敬公, 文靖公의 墓祭 봉행

영가군 회경공 문정공 묘제



◇영가군(永嘉君14世. 韓: 韓奕) 묘전에서 초한관 권학구 이하부복, 권정창 독축하고 있다.



◇연원재사 옆 주사 겸 관리실(금년신축) 앞에서 기념촬영하다. 앞줄 왼쪽 두 번째 아현관 권기화, 네 번째 파종회장 권택원, 다음 초한관 권학구

좌옹공파는 연원재사燕院齋舍(안동시 북후면 오산리558)에서 묘제전일저녁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익일 음10월14일 오전10시부터 ◆영가군(永嘉君), 회경공(僖敬公), 문정공(文靖公)묘제를 제례행기에 따라 경건히 봉행하였다.

정기총회는 파종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식 총무의 사회로 선조고 망배, 상례례, 감사보고, 경과보고를 하였으며 권학구 도유시는 원근각지에서 회의참석 및 묘제에 특히 가을걷이 일들을 남겨두고 참석하여 주신대 대하여 감사의 인사와 금년에 주사 겸 관리실을 회장, 총무, 임원진 여러분이 완공하느라 수고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권택원 파종회장은 관리실 완공에 대해서 추가로 상세히 경과보고를 함에 대하여 회원여러분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냈다. 경주 권혁광(赫光)씨는 절동제사(17世. 韓: 趙紹 수호하는 재실) 관리위원회에서 성금 2백만원 봉상하기로 합의하고 현 성금을 전하여 족친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묘제봉행은 ◆14世 韓 韓奕 총렬 경인 문과급제 고려증문지후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추봉 영가군永嘉君

◆15世 韓 韓用일용-랑장 고려문하시중 증승록대부 의정부 좌참찬 시 회경공僖敬公 ◆16世 韓 韓正정-감찰규정 증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시는 문정공文靖公 ◆현령공의 묘는 영가군 묘야에 있으며 연원재사 관리위원회에서 위 3위와 같이 봉행하였다.

현관 및 집사는 ◆초한관:권학구(權鶴九), 아현관:권기화(權奇和), 종현관:권혁근(權赫根), 대추:권정창(權正昌), 찬자:권혁무(權赫武)가 진행하였다.

이날 오후3시 묘제봉행을 마치고 2013년 새로 완공된 연원재사 옆 주사 겸 관리실 앞에서 일부제관들은 기념촬영을 하고 내일 시조대사공 묘소와 남중공당소 추향과 능동제사에서 저녁7시에 열리는 대중원 대당회의 참석을 위해 능골로 이동하였다.

(후손 권혁무 증무위원)

추밀공파대중회 제30차 이사회



◇추밀공파대중회이사회에서 권혁승회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2013.12.6. 대중원원 고기풍년회관에서)

추밀공파대중회(회장 권혁승)는 지난 6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고기풍년회관」에서 이사회(理事會)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理事會)를 개최했다.

권영빈사무국장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권혁승회장은 인사에서 추밀공의 문정공(文靖公) 증손 문정공(文正公) 현손 증정공(忠靖公)은 묘소가 개성남쪽 이북에 있어 제향을 못 올리고 있는데 마침 5대손 정간공종회 정기총회에서 고양시 성사동에 있는 재실에 사무를 건립하고 4위분 세향을 봉행하기로 결의 되었으니 추밀공파대중회에서도 적극 협조기로 하기로 하여 자세한 내용은 안동권씨중보 12월호 1면에 게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사무국장이 2013년도 경과보고·결산보고를 했으며 권오문감사의 감사보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하고 기타 토의로 폐회했다. (권오복 편집위원·사진 권범준 기자)

독립운동과 권오설의 등장 ②

<지난호에 이어>

아마도 이 기록은 당시 육바라지를 위해 서울에 머물던 큰 동생 권오기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 같다. 그렇다면 그는 광주에서 3·1운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움직임을 보였고, 이로 말미암아 경찰에 잡혀 고생하였다는 정도는 짐작하기도 가능하다. 그런데 조선공산당과 6·10만세운동으로 재판을 받던 과정에서 있는 제15회 공판조서에는 "전과가 없는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구류 상태에서 6개월을 고생하고 풀려났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때가 1919년 가을 무렵이었다.

드디어 권오설이 가일마을로 돌아왔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1919년 11월, 가일마을 친척들은 권오설을 어떤 표정으로 맞았을까? 외지로 나가 공부하고 도청에 근무하던 한 젊은이가 경찰에 잡혀 고생하다 돌아온 것이다. 그는 도시에서 배운 지식을 마을 청소년에게 가르치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원흥의숙元興學校이라고도 불리는 원흥학술강습소元興學術講習所를 세웠다. 문중에서 지원하고 나섰다. 건물이나 문중 소유 재사를 사용하지 않던 운영비가 필요했다. 가일 8부자로 불리기도 하면서 광복회에 자금을 지원했던 권준홍이 살림에 앞장섰고, 준홍의 생가 동생인 권준호權準洵가 교사로 참가하였다. 권오설 스스로 교장 겸 교사를 맡았으니, 비로소 본 마을 출신 신식 교육 이수자가 마을 청소년 교육을 책임진 것이다. 이 학교에서 수학한 마을 청년 가운데 서울로 유학하는 인물들이 나왔다. 이들이 곧 1920년대 새로운 인물로 떠올랐으니, 권오설의 영향권 속에서 성장한 인물들이다.

권오설의 등장은 가일마을에 신식교육을 도입하는 정도로 머물지 않았다. 구국교육을 안동 전체로 확산시켜 가면서 농민운동과 청년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청소년을 키워내는 것이 내일을 향한 일이라면, 농민들과 청년들을 묶어 세우는 일은 당장 오늘 실천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였다. 그것을 보는 안목이 그에게 있었다. 1921년 4월 일지서숙一直書塾과 1922년 풍산학술강습회를 설립하여 청소년을 가르친 것은 교육운동이었다. 그리고 1920년에 가국농민조합 조직, 8월 안동청년회 집행위원, 9월 4일 안동 일직면금주회一直面禁酒會 창립과 회장 취임, 9월 23일 조선노동공제회 안동지회 임회, 1922년 풍산청년회 결성 등이 모두 그러한 길이었다.

권오설과 노동·농민·청년운동

권오설에게 새로운 도약 단계는 소작운동을 벌이던 1923년이었다. 그해 11월 11일, 그는 풍산소작인회집행위원이 되어 본격적인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풍산소작인회를 결성하기 앞서 거기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야 했다. 그것이 바로 풍산학술강습회였다. 이 강습회에 대해 두 가지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 '풍산 하기강습회 청강생명부'와 '지출장'이 그것이다. 이것은 아마 1922년이거

나 그 이듬해 기록인 것 같다. 즉 풍산소작인회 결성 직전의 강습회 기록인 셈이다. 이들 기록은 권오설이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청강생 명부에는 남자 129명, 여자가 13명 등 142명의 이름이 들어있다. 주학부書學部, 즉 '낯반'이라는 제목으로 명단에 적힌 점이나, '지출장'에 석유램프와 유류비 명목 지출 사항이 있는 점으로 보아 야간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청강생은 200명가량 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참가자들은 '풍산'을 둘러싼 마을, 즉 가일·소산·상리·하리 등 4개 마을 출신이 주류를 이루었고, 안교·갈전·현애·노동 등 8 주변마을 출신이 소수 참여하였다. 즉 풍산하기강습회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풍산들을 둘러싼 마을출신 청년과 여성이었고, 특히 가일과 바로 이웃 소산, 그리고 동쪽으로 건너편의 상리(우룡골)와 하리가 중심이었다는 말이다. 가일마을에서 하기강습회에 참가한 인물은 대개 권오설의 집안 형제들이다. 친동생인 오기五箕와 오직五稷을 비롯하여 오현五雲·오운五雲·오경五敬·오섭五燮·영목영穆 등이다.

가일마을 청년 가운데 권오운이나 권오현의 진로를 보면 권오설의 영향력이 바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얼마 뒤에 권오운이 서울로 유학하면서 6·10만세운동에 나섰고, 안교동 출신 권태성도 6·10만세운동에 앞장선 뒤, 안동지역의 사회운동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게 되었다. 권오설이 풍산소작인회 결성을 앞두고 강습회를 개최한 이유가 바로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인물을 양성하는 데에도 목적이 둔 것이라 생각된다.

풍산소작인회 결성에는 서울에서 활약하던 고향 선배들이 깊게 연관을 가졌다. 김재봉은 안동의 부동 가문 출신이며, 서울에서 만주일보 경성지국에 기자로 근무하다가 대한국민임시정부 지원활동을 펴다가 체포되어 징역 6개월 형을 살았다. 출옥하자마자 그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표대회에 조선노동대회 대표 이름으로 참석한 뒤,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고 조선공산당 건설을 목표로 삼고 귀국했으며, 1923년 8월에는 포르부르 내지부 책임자가 되었다.

고향 안동에도 허부조직이 있어야 하고, 또 뒤를 받쳐줄 인물도 필요했다. 거기에 합당한 인물이 바로 권오설과 김남수金南洙(1899-1945)였다. 김남수가 안동읍내에서 사회문제 전반에 관심을 가졌다면 권오설은 풍산들을 중심으로 농민운동에 초점을 두었다.

1923년 11월에 풍산소작인회를 결성한 권오설이 그 대표 자격을 갖고 서울로 갔다. 가일마을에서는 원흥의숙에 동참하고 안동청년회에도 열성이던 권준표가 고향에서 권오설의 뒤를 받쳤다. 권오설에게는 집안할아버지이지만, 준표가 한 살 많은 나이였으므로 서로가 형제 같은 사이였다. 이듬해 2월에 그는 신홍청년동맹과 한양청년연맹의 중앙집행위원이 되고, 4월 조선노동총동맹에 풍산소작인회 대표로 참가한 뒤, 10인으로 구성된 상무위원

기로회(耆老會) 정기총회 권정택(權貞澤)회장 연임

태조 4년 1365년에 77세였던 공 학식과 덕망으로 작을 받고 태조4년 1404년 갑신 봄에는 나라의 원로급 인사 10명과 함께 기영회耆英會를 조직하였다.

쌍명재雙明齋 최당崔諤의 고사의 의하여 일찍이 정승 이상의 관직을 역임한 사람이면 연령의 구애없이 기영회의 입회시키고 공이 그 회장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로회의 창시이다. 공은 고려 충숙왕 6년 1319년 기미에 출생하여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承祿大夫) 검교의정부좌정승(檢校議政府左政丞兼) 수문전대학사(修文殿大學士)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에 봉군되고 시호는 靖簡이다.

기로회(耆老會)는 2013년 12월 10일 오전 11시경 서울 성북구 정릉1동16-448 사무실에서 열린 총회에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고 권정택(權貞澤)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권병일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와 회계결산 등이 처리 되었다. 권영익(權寧翼) 전회장이 임시의장으로



회원은 모두 유임기로 하였다. 유임된 권정택 기로회장은 추밀공파 정헌공계(正獻公系) 화산부원군(火山府院君) 종회장 경기장단 출신으로 현재 성군관 전의(典儀) 겸 전례사(典禮士)이며 취임인사에서 역사 깊은 기로회耆老會의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회원 확보에 주력하고 자체내의 복리향상(福利向上)을 위하여 경성비 확보 마련에 부회장님들과 함께 힘을 다짐하였다. 주사무실 문제 해결이 난제가 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바 이가 늘 기로회를 새로운 회장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현안의 난제이다. <권정택 기로회장>

計劃을 잘 세워서 일할 때 實踐해야 후회가 없다

안동권씨 기로회장 권정택

“상에 말하기를 하늘과 물이 어긋나게 가는 것이 송개(訟卦)이니, 군자가 본받아서 일을 만들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운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어 때부터 나이를 계산한다. 자궁(子宮) 안에 열 달 있었던 것을 계산해서 태어나마자 한 살이라고 한다.

이른바 우리 나이라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눈이 보이고 귀에 들릴 때 비로소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계산법이다. 그런데 말이 열 달이지 실은 280일밖에 안 된다. 아홉 달하고 열흘밖에 되지 않는 것.

요즘 과학자들의 도움을 얻은 결과 72일 이 더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72일과 280일을 합해서 352일을 알게 되었다. 달의 일년주기가 354일이므로 음력을 썼던 우리조상들이 이들의 차이를 눈감아 주었을 것이다.

그 72일은 바로 고환세포에서 정자(精子)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다. 고환세포가 감수 분열을 하여 정자가 되어 움직일 수 있게 되기까지 약 72일이 걸리는 것이다. 72일 동안 부지런히 감수분열(減數分裂)을 하여 정자세포(精子細胞)를 만든 뒤 이를 부고환(副睪丸)에 저장했다가, 합궁(合宮)할 때 정액과 더불어 자궁으로 들어가 난자와 결합함으로써 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부고환(副睪丸)의 저장되는 기간까지 더하면 달의 1년 공전주기와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부부가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했다면, 적어도 합궁하기 72일 전부터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면서 준비를 하였을 것이다. 그래야 훌륭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예로부터 “백일기도를 해서 아이를 난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이다. 72일 동안 술과 담배 등을 절제하며 건강을 챙겨야 할 것이고 즐겁고 신랄한 마음을 가짐으로서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잘 자랄 수 있고, 또 정성스럽게 잘 가꾸어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좋

은 대학 좋은 직장을 못간 것을 한탄하며, 결혼을 잘못한 것을 한스러워 한다. 근원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보고 아쉬워하는 것이다. 전쟁의 승부는 작전을 잘 짤 때 결정된다. 창칼을 부딪치며 싸운 장군들은 단지 그 정해진 수순대로 움직여 결말을 본 거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역에서는 송사가 버러지고 아쉬워 하지 않도록, 일을 할 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지역인신



▲북안농협조합은 지난 11월12일 조합장선거에서 권영구(안동,34세 추밀공파)가 입후보하여 투표결과 당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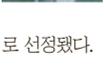
▲(주)안랩은 사업총괄 담당인 권치중(67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발령하고 최고경영자(CEO)선임했다.



▲관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56)가 지난 7일 전주시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부동산학회 정



총에서 17대회장에 선출됐다. ▲KT CEO 추천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권오철(55) (주)SK 하이닉스반도체고문을 후보



로 선정됐다.

회 위원을 거쳐 책임자가 되었다.

코민테른이란 국제 조직의 지시를 받아 정통성을 확보하였지만, 마음 놓고 일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깊게 결속할 인물이 필요한 것은 당연했다. 거기에 적당한 인물이 바로 권오설과 김남수였다. 마침 경상고무여공파업을 지원하고 과급식키다가 김남수가 투옥된 상태였으며, 권오설이 풍산소작인회를 결성하면서 그 역할을 맡고 나섰다. 조선노동총동맹 선두에 나선 권오설은 1924년 4월 하순에 조선노동총동맹 임시대회를 열었다가 간부20명과 함께 구속되고, 5월 3일에 무죄로 풀려 나면서 일제 탄압을 겪었다. 그해 연말에는 조선노동총동맹상무위원으로서 남부지방을 순시하면서 조직을 확대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당시에 그는 무산자동맹회와혁명청단, 불꽃사(火花社)동인으로 활동했다.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이 창당되었다. 두 달 앞선 2월에 권오설은 김재봉·김찬·조봉암·박현영·김단야 등과 김재봉의 하숙집에 모여 조선공산당 창당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4월에 조선공산당이 정식으로 결성되어 김재봉이 책임비서이, 권오설은 중앙집행위원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권오설은 조선노동총동맹 대표로서 고려공산청년회 조직에 참여하여 7인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및 조직부 책임자가 되었다. 또 그는 주로 청년·학생들의 규합에 노력하였고, 모스크바 동방노동자공산대학에 유학생을 파견하는 일을 추진했다. 유학생 10명 가운데 안동출신으로 자신의 친동생 권오직과 안동 와룡 중기구동 출신 안삼순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권오설의 영향력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권오설이 서울을 오르내리며 활동하던 기간에 가일마을 사람들은 풍산소작인회를 끝이나고 있었다. 맨전두에 선 지도자는 풍산을 건너 동편 마을인 우룡골 출신 이준태였다. 서울에서 김재봉에게 교두보를 확보해 주고, 권오설을 불러올려 활동무대를 만들어 준 이준태는 다시 안동으로 돌아와 풍산소작인회를 지도해 나갔던 것이다. 풍산소작인회 자체에 가일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인물이 참여했는지 알 수 없다.

권오설과 6·10만세운동

1926년 3월, 권오설은 해외 망명을 계획하였다. 서울에서 메이데이 시위를 기획하였다. 대대적인 연합시위를 펼치고, 그 과정에서 민족통일전선을 이루자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1926년 4월 24일에 정우회·진진회·조선청년총동맹·조선노동총동맹 대표가 모여 방법을 논의하고, 조선노동총동맹이 진행을 책임지도록 결의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갑작스런 일이 벌어졌다. 옹희회측 순종이 숨을 거둔 것이다. 일제의 경계와 탄압이 엄중해지고, 민중들의 애도분위가 점증되자, 권오설은 김단야와 논의한 끝에 메이데이 시위를 철회하고 인사일에 대중적 시위를 일으키는 쪽으로 운동 방향을 수정하였다.

4월 말경부터 6·10만세운동이 기획되기 시작했다. 그 기획자가 바로 권오설이었다. 순종 장례에 참가함으로써 사회주의운동을 전국에 뿌리내리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권오설은 1926년 5월1일 상주 차림으로 변장하고서

암록강을 건너 안동현 역전 근처 초원에 서 김단야를 만나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돌아왔다. 만세시위를 펼치는 것, 제2의 3·1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시위를 일으킬 조건은 3·1운동 당시보다 훨씬 나았다. 3·1운동과 같은 시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일제가 군대와 경찰을 모두 동원하였다. 정말 물 썰 틈이 없었다. 일제 경찰은 움직일 만한 인물들을 한 사람씩 철저히 분석하고 추적하고 있었다. 즉 3·1운동이 일어나면 무렵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통제가 철저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국장 인선에 맞춰 시위를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중시위를 펼치기 위해 통일전선체 구성이 필요했다. 그 해결 방향이 천도교 진영의 구과와 조선노동총동맹, 그리고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연대를 이루는 것인데, 협의과정을 거쳐 이를 달성했다. 그리고서 서로 역할을 분담했다. 천도교청년동맹이 격문 인쇄와 만세운동의 지방 확산을 맡았고, 권오설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 임무와 역할을 지시하였다. 또 학생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인사 당일 행렬에서 시위를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거 만세를 선창하고 격문을 살포하여 거 즉적인 시위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안동출신 학생, 특히 가일마을출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가한 사실이다. '권오설과 안동그룹'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정도이다. 권오상權五尙(본명 권오문權五敦)과 권오운權五雲은 집안동생들이고, 권태성權泰晟은 풍산읍 북쪽에 있는 풍산 안교동 출신, 그리고 이선호李先鎬는 안동 예안의 부모, 류면희柳冕熙는 예안의 삼산 출신이다. 이선호는 중앙고보 재학생으로 역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상무를 맡던 핵심인물이다. 격문 배포를 맡은 그는 당일 만세를 선창하여 시위를 이끌어냈고, 이로 말미암아 옥고를 치렀다. 류면희는 중앙고보생으로 류인식의 동생, 류만식의 아들이다. 그는 출옥한 뒤에 1929년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집행위원으로 활약했다. 권태성은 중앙고보 재학생이었는데, 안동 유학생회장을 맡기도 했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권오문과 권태성은 상경하기 이전에 풍산하기강습회에서 권오설의 교육을 받은 인물들이기도 하였다.

6·10만세운동에서 안동그룹은 권오설을 정점으로 삼고 철저히하게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물론 이병립을 중심으로 움직인 학생들이나, 천도교 구과의 활동도 대단했다. 그런데 권오설이 이들 학생 조직을 움직이면서 가일마을을 형제들을 비롯한 안동출신 학생들을 선두에 내세웠다. 그러나 1926년에는 서울에 유학하던 가일마을을 청년들이 6·10만세운동 한 복판에서 움직이고 있던 해였던 것이다.

만세시위가 일어나기 직전, 6월 4일에 시위준비 작업 일부가 일제 경찰에 노출되었다. 권오설이 6월 7일에 체포되고, 시위는 불발로 끝날 위기에 부딪혔다. 하지만 인사 당일 종로4가 네거리에서 중앙고보생 이선호가 걸 가운데로 뛰쳐나가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것이 제2의 3·1운동이라는 6·10만세운동의 신호탄이었다. 6·10만세운동이 확산되면서 권오상과 권오운도 체포되었다. <다음호에 계속>